

[약함의 연대로 한일 관계를 재설계하다] “사회복귀란 당연한 고생으로 돌아가는 것”

8 박종언 기자 | 2022.08.25 19:34 승인

기획① 도토리회 모임에서 베델의집까지
퇴원한 정신장애인 축하 모임에서 베델의집 건설 시작
강점 아닌 약함을 드러내 세계를 재해석하는 게 당사자연구
일본 정신병원 33만 병상, 우라카와는 정신병원 오히려 폐쇄돼
정신장애는 '말과 관계의 병'...의료권력에 빼앗긴 언어 되찾아야
'안심하고 땡땡이치기'는 반(反)자본주의의 인간존중 철학
당사자연구 책 출판되면서 한국 정신장애계와 연결고리 구축돼

한일 관계는 늘 복잡하다.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역사적 문제, 인류의 공동 과제들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형제적 가치,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 등이 그렇다. 그런데 이 모두를 정치적으로만 풀어낼 수는 없다. 다만 시민사회의 요청들이 정치가 풀지 못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인드포스트>는 일본 베델의집 당사자연구 이념의 출발과 한국 정신장애 시민조직과의 교류·협력의 과정을 주제로 4차례에 걸쳐 기획 기사를 게재한다.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홋카이도의료복지대학 임상복지학과 교수. 사진=베델의집 누리집 갈무리

1978년 봄,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갓 졸업한 23살의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씨는 일본 북부 지역 홋카이도의 삿포로역에서 우라카와 마을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골생활은 딱 3년만 할 생각이었다. 그는 배웅 나온 지인들에게 "3년만 지내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지인들은 손을 들어 인사를 했다.

4시간 후 우라카와 마을에 도착한 그는 역 앞의 허물어질 듯한 집들, 허름한 여관들의 모습을 보며 탄식했다.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일은 해 보자고 생각을 바꿨다.

그는 마을 중심지에 위치한 우라카와 적십자병원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했다. 병원의 정신과병동은 130 병상으로 환자들로 차 있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선배도 병원에는 없었다. 그는 혼자 마을의 적막함을 느껴야 했다. 그때는 몰랐다. 나머지 삶의 대부분을 이 마을에 바칠 줄은.

◆...황량한 우라카와 적십자병원 사회복지사로...3년만 지내겠다 했는데

그해 여름, 정신장애인 동료들이 7년간의 병원 생활 후 퇴원하는 정신장애인을 위해 모임을 가졌다. 초대를 받은 무카이야치 씨는 퇴원한 당사자 30대 후반의 사사키 미노루 씨와 인사를 나눈다. 사사키 씨는 이후 무카이야치 씨와 정신장애인 공동체 운동의 긴 동반자가 된다. 모임의 명칭은 '도토리회'였다.

그날 모임에서 그들은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 인간으로 존중되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지역에서 역할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우라카와 특산품인 히다카 다시마를 직송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청이었지만 성실한 근로 태도에 원청사가 일감을 몰아줬다.

그때,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함께 살며 회복을 돕는 공간이 필요했다. 도토리회 회원들은 마을의 낡은 교회당을 빌려 '베델의집'이라는 생활공간을 만들었다. 무카이야치 씨도 자기 집 대신 이들과 함께 베델의집에서 생활을 같이 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당시 정신장애인 지원체계는 시설 중심이었고 약물과 전문가 진단 중심이었다. 베델의집은 조금씩 그 경계를 허물어가기 시작했다.

하청을 받던 다시마 판매 사업은 원청사가 문을 닫으면서 베델의집이 인수했다. 사업 초창기 도토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10만 엔의 돈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10년 후 1억 엔의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우라카와에 정신장애인 공동체가 있다는 소문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갓 퇴원한 통합실조증(조현병) 당사자, 가정폭력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중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당사자, 알코올중독에 빠졌던 당사자 등이 우라카와로 모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150여 명이 베델의집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후 베델의집은 기저귀 택배사업, 청소 사업 등을 위탁받았고 사업 시작 10년 후 복지샵 베델의집 주식회사, 2002년 사회복지법인 우라카와 베델하우스를 설립하게 된다. 사사키 미노루 씨는 이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이사장이 되고 시설장에 취임한 건 최초다. 베델의집은 출판사업도 함께 진행됐다.

◆...우라카와 마을 낡은 교회당에서 베델의집 시작...다시마 사업부터

일본의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는 의료 중심, 약물 중심, 병원 중심이었다. 2018년 현재 정신병원 병상 수는 33만 병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정신장애인 케어와 관리에 관한 법률도 1900년 정신병자감호법에서 시작해 세 차례의 법 개정을 진행한다. 1950년대 정신위생법, 1987년 정신보건법, 1995년 정신보건복지법이 그렇다.

1964년 주일 미 대사 라이샤워가 정신질환을 가진 19세 청년에게 흥기 피습을 당했다. 당시 일본사회는 '정신장애인을 지역에 방치해도 되는가'라는 방치론에 불을 지폈고 국가는 개인(정신장애인)의 인권보다 다수(일반 시민)의 인권을 앞에 둔다는 사회방위적이고 치안적인 방식으로 정신장애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치안적 이념은 베델의집이 시작되던 1980년대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베델의집 당사자연구 시간. 사진=베델의집 누리집 갈무리

우라카와 베델의집은 정신질환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고통은 제거돼야 하는 적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수고스러움의 지혜라고 해석한 것이다.

1980~90년대를 거치오면서 베델의집은 미국에서 개발된 SST(Social Skills Training·사회기술훈련)을 당사자 분석에 적용했다. 이는 비약물요법의 하나로 자동차 운전을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차에 시승해서 운전 기술을 가르치자는 의미다. 곧 '연습하기'이다. 하지만 문제가 나섰다. SST가 인간의 강점만을 내세울 때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약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베델의집 사업도 안정권에 들었고 전국에서 견학이나 방문하는 연간 인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가고 있을 때였다.

2001년, 우라카와 적십자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20대 청년이 무카이야치 씨와 마주 앉았다. 청년은 통합실조증을 갖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병원 내 전화기를 부숴다. 무카이야치 씨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함께 연구해 보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사자연구가 그렇게 시작됐다.

당사자연구의 회복 결과는 엄청났다. 무카이야치 씨는 한 당사자의 말을 인용해 당사자연구의 힘을 이야기했다. "당사자연구를 알았을 때 이것으로 나도 살 수 있겠다."

당사자연구는 기존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람과 문제를 분리한다. 문제에 대한 고생의 패턴을 같이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생에 대해 별명을 붙이고 고생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 자기를 돕는 방법을 알아 가는 구조다.

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통합실조증 당사자들이 겪는 환청과 망상이었다. 정신의료체계에서 의료진은 당사자가 겪는 환청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질적인 개인의 경험으로 치부한다. 그런데 당사자연구는 그 환청을 주제로 공부를 한다.

환청이 말하는 형식, 구조, 그때의 당사자의 마음, 감정적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진정된 상황에서 안심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

◆...폭발 패턴 보이는 청년과 처음 시작한 당사자연구

이는 핀란드 오픈다이얼로그(Open Dialogue)의 대화에 의한 회복 패러다임과 유사한 대안적 치료법이다. 오픈다이얼로그는 당사자가 정신응급에 처할 경우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 간호사, 친구, 동료, 부모, 경찰 등이 모여서 당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 기존 정신의료 체계의 고착화된 치료 방식인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약물 투여와는 다른 접근법이다. 이 오픈다이얼로그에 의해 정신응급을 경험한 이들의 회복률은 약물 투여 환자보다 더 높았다.



베델의집 환청망상 대회. 사진=베델의집 누리집 갈무리

무카이야치 씨는 정신적 장애는 '말과 관계의 병'이라고 규정했다. 그 말을 빼앗기고 부당하게 상실당할 경우 인간은 정신질환을 겪게 된다. 또 정신의료 체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과보호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겪어야 할 삶의 고통을 빼앗겨 인간 행위가 가지는 풍요로움과 또다른 삶을 개척할 가능성을 빼앗아 버린다는 지적이다.

당사자연구의 또다른 이념은 '약함을 유대로'이다. 각자가 가진 약함을 공개해 서로 돕는 자조(自助)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는 무기력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말과 대화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SST가 가진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무카이야치 씨는 "약함은 강함이 약해진 것이 아니다. 강함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강한 것의 지배를 받는 가치 속에서 인간이란 약한 존재라는 사실과 마주하고 그 안에서 약함이 갖는 가능성을 이용한 삶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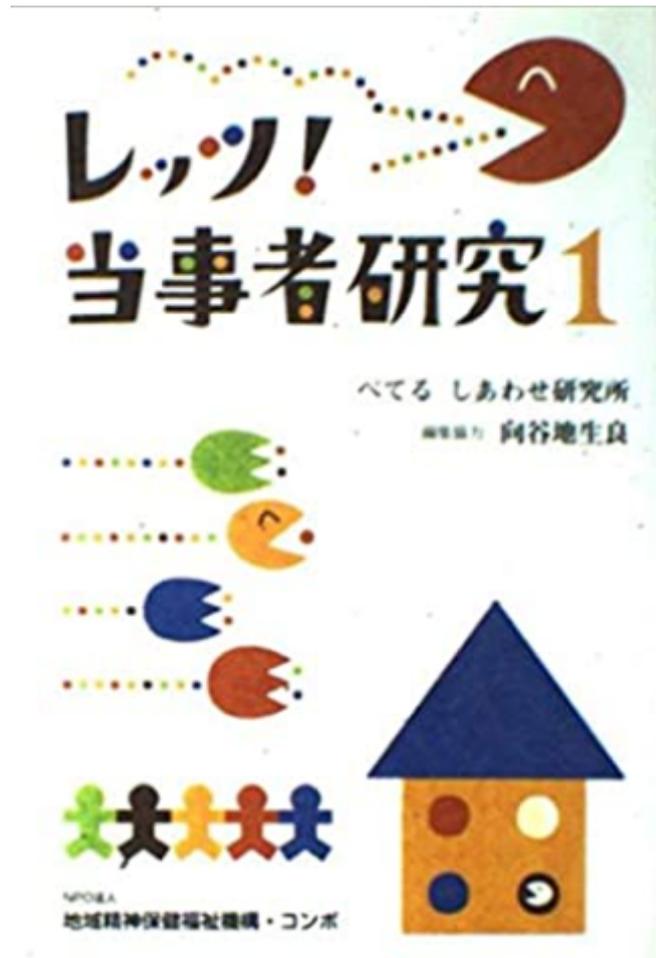
당사자연구는 대학에서도 적극 수용됐다. 2015년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의 구마가야 신이치로 교수는 당사자연구 강좌를 개설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사자연구는 방치되고 버려진 다양한 소수자들이 존재, 중복 차별을 겪는 사람들, 젠더 문제와 약물의존증을 가진 사람, 소수 민족과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의 현장에서 생겨난 실천이며 자신들의 언어를 탐구하는 노력이다."

이 같은 인생관은 2차대전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존재 의식과 일맥 상통한다. 프랭클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실존분석을 정신질환의 의미 치료(로고테라피)로 확장시켰다.

당사자연구를 통해 자기자신의 고통을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면서 우라카와 적십자병원의 정신병동은 입원환자가 줄면서 2014년 폐쇄됐다.



베델의집 출판 '레츠! 당사자연구'.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등을 통해 한일 정신장애 단체들의 교류가 시작된다. 사진=베델의집 누리집 갈무리

베델의집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익이 나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통합실조증 당사자 등이 일을 할 때 엄격한 통제에 따른 작업이 아니라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지 않고 집으로 귀가해도 되는 체계를 지향한다.

◆...도쿄대에서 당사자연구 수용...베델집 책 번역으로 한일간 교류 시작

이 반(反)자본주의적 사유는 인간의 삶이 자본 축적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유 속에서 존재를 확인한다는 인간 중심의 철학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질병을 통한 자기 존엄의 회복과 자유로움에 대한 적극적 조치. 그래서 베델 이념은 '안심하고 땡땡이치기'이다.

무카이야치 씨는 2000년대 들어 베델의집 출판사를 통해 당사자연구 이념을 소개하는 책들을 동료들과 함께 발간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레츠! 당사자연구', '베델의집 사람들' 등이 출간되기 시작한다. 이 책들은 한국에도 번역돼 2006년 한국의 김대환

충주정신건강센터 관장이 우연히 읽게 된다.

이 관장은 책을 읽은 후 2007년 한국의 사회복지사로서는 처음으로 베델의집을 방문했다. 무카이야치 씨와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됐다. 이 관장은 2015년 당사자연구를 한국에 접목하기 시작한다. 이후 베델의집과 한국 사회복지단체와 기관 등은 2022년 7월 현재까지 모두 52회의 연수와 방문을 나눴다.

1978년 우라카와에 와서 언제 떠날까를 고민하던 무카이야치 씨는 지금 우라카와에서 당사자들과 44년째 생활하고 있다. 현재 홋카이도의료복지대학교 임상복지학과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그는 우라카와역에 처음 내렸을 때를 회상했다. 그때 자신이 느꼈던 동네의 적막함과 황폐함은 충격이었다. 환경을 그대로 두고 당사자의 자립과 의료적인 사회복지만을 요구한다면 그건 또 다른 형식의 폭력일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마침내 사회복지를 이렇게 정의내렸다.

“사회복지란 한탄하고 있던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고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작권자 © e마인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언 기자

[약함의 연대로 한일 관계를 재설계하다] “당사자연구는 인간의 삶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해”

8 박종언 기자 | ㉹ 승인 2022.08.26 19:54

기획②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당사자연구

2006년 베델의집 출간 책 읽고 일본 당사자연구에 관심

일본과 한국에 서로 초청하며 52차례 교류...신뢰 기반한 발전

당사자는 자기 병의 경험전문가...그가 편히 말할 수 있게 해야

질환은 증상으로만 이해 말고 개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정신의료체계는 당사자를 과보호, 과잉 규제해 삶의 의미 잃게 만들어

자기 결정 영역까지 침범하면 당사자는 자신의 삶과 괴리 발생해

말을 통한 회복은 정신장애 당사자운동의 중요한 정치적 목표

한일 관계는 늘 복잡하다.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역사적 문제, 인류의 공동 과제들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형제적 가치,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 등이 그렇다. 그런데 이 모두를 정치적으로만 풀어낼 수는 없다. 다만 시민사회의 요청들이 정치가 풀지 못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인드포스트>는 일본 베델의집 당사자연구 이념의 출발과 한국 정신장애 시민조직과의 교류·협력의 과정을 주제로 4차례에 걸쳐 기획 기사를 게재한다.



김대환 청주정신건강센터 관장. (c)마인드포스트.

2006년 여름, 김대환 충주정신건강센터 관장(당시 사회복지사)은 충북과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야마나시 현의 정신보건 시스템을 견학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기내에서 무료하게 창밖 풍경을 보고 있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하숙자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가 책 한 권을 건넸다. 일본 전직 기자 출신인 사이토 미치오 씨가 쓴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였다. 그때, 베델의집을 처음 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 관장을 비롯해 센터 직원들은 정신장애라는 병과 증상을 의료적 관점에서만 해석할 뿐 그 이상의 도움을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다.

그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증상과 병을 이야기하면 "병원에 가서 약물을 조정하고 입원해서 쉬었다가 오라"고 권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사회와 당사자 중심의 치유 체계는 먼 나라 얘기였다. 그건 이론으로만 접해봤을 뿐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김 관장은 대안적 정신건강 시스템을 갈망하고 있었다.

◆...베델의집 다룬 책 하나에 꽂힌 김대환 관장...베델 모델은 '희망이 보이는 사건'

청년 시절부터 사회복지사의 길을 걸어온 그에게 1995년 한국의 첫 정신장애 관련 법령인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고무적이었다. 센터를 지역 거점으로 해서 입원했던 정신장애인들의 퇴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입원환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장애가 고착돼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모습 역시 그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다. 방향은 필연적으로 찾아왔다.

그런 그에게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는 그의 표현대로 "지난 시간의 고생과 암담한 현실에 탈출구 같은 희망을 보이는 사건"이었다.

그는 "기존에 당사자들은 삶을 이야기하는데 나를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은 병과 증상으로만 듣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베델의집 모델은 한국의 약물 중심주의와 전문가주의 서비스에 대한 거대한 대항 담론이었다"고 말했다.

책을 읽은 후 김 관장은 베델의집 방문 계획을 세웠다. 2007년 5월, 김 관장은 사회복지사와 당사자 등 24명과 함께 처음으로 우라카와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교수를 만났다. 운명이었다. 그리고 베델의집 마스코트로 불리는 당사자 하야사카 키요시 씨와도 인사를 나누었다. 키요시 씨는 그때 김 관장을 한국에서 온 '손님'으로 지칭했다.

무카이야치 교수는 김 관장에게 '당사자연구'를 설명했다. 처음 듣는 연구 방법이었다. 그는 김 관장에게 "사회복지사가 무력감에 빠질 때 당사자연구가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 관장은 베델의집 방문 후 당사자연구의 실천적 방법을 고민하고 현실에 적용해 봤다. 2014년 첫 발걸음을 뗀 한국의 당사자연구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하려고 하지 않는 심리적 상황에 부딪혔다. 게다가 당사자의 날것으로 흘러나오는 고통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연구는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 접한 당사자연구 한국에 접목...전문가주의에 대한 대항 담론 형성

김 관장은 문제의 원인을 생각했다. 그는 결론을 내린다. 전문가로서의 당사자와 당사자로서의 전문가가 만나 병과 증상으로만 당사자를 이해하는 게 아닌, 질환을 하나의 개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함께 걸어보겠다는 결심이었다.



2019년 11월 청주에서 열린 당사자연구 세미나 참여자들. 당사자연구는 청주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돼 나갔다. (c)마인드포스트.

침체기를 걷던 한국형 당사자연구는 이후 급물살을 탄다. 당사자연구를 주요 사업 프로그램으로 넣고 실천하고 있는 정신장애 관련 센터와 재단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청주정신건강센터는 당사자연구를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사회복지사를 향해 당사자들은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지만 막상 사회복지사들은 당사자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몇 년을 고민하던 김 관장은 2018년 베델의집 교류회 중 무카이야치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무카이야치 교수는 "당사자들은 정신병과 증상의 경험 전문가"라고 조언했다. 경험 전문가. 김 관장은 후일 핀란드 오픈다이얼로그에서도 치유 체계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경험전문가'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김 관장은 "당사자연구는 말로 만나는 것을 중시한다"며 "회복은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기존 정신의료체계에서의 당사자가 상실하고 강탈당한 말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연구의 주요 이념인 고생의 되찾음에 대해서도 그는 "정신의료체계에서 당사자는 과보호, 과잉 규제를 받아서 사람으로서 당연히 겪는 고통을 빼앗기고 인간적 행위의 풍요로움과 가능성을 잃어버린다"며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영역까지 침범하게 돼 당사자

는 점차 자신의 삶과 괴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의 국제 교류는 활발해졌다. 2007년을 시점으로 2022년까지 한국 정신보건 관련 개인과 단체들은 총 39회에 걸쳐 베델의집을 찾았다. 일본 베델의집 역시 총 13회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당사자연구가 정신장애에 고착되지 않고 발달장애인, 비행청소년, 노숙인을 위한 당사자연구로 확장돼 나가는 데 의견을 모은다.

2019년 청주정신건강센터 주관의 당사자연구에는 각 지역의 정신보건 관련 기관 10여 곳이 참여하는 연대적 체제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사실상 한국형 당사자연구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단계로 분석된다.

◆...정신의료체계의 당사자 과보호가 인간적 행위의 풍요로움 빼앗아가

이 같은 현상은 한국 대학 교수들의 참여로 더 외연이 확장하게 된다. 마치 일본 도쿄대학교 철학과 이시하라 코지 교수가 도쿄대철학연구소 주관으로 당사자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던 것처럼 학계에서의 영향력이 번져나가는 모습이다.

김경희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사자연구는 고생에 직면했을 때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 지원가에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체가 돼 자기 말로 표현하고 스스로의 고생의 메커니즘을 파악해 주체적 회복을 돕는 과정이 당사자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연구'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온 이진의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생은 “자기결정의 장벽 속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운동은 병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개념을 당사자 경험을 토대로 형성하고 대중화해 왔다”며 “여기에서 회복은 그 자체로 정신장애 당사자운동의 중요한 정치적 목표”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사자연구는 인간의 삶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베델의 독특한 철학을 토대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정신장애에 대한, 그리고 정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2022년 7월 몽골 울란바투르에서 진행된 한몽일 동북아 컨퍼런스에서 김대환 관장(가운데)이 발표하고 있다. (c) 마인드포스트.

광주에서 당사자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 소화누리 유미의 팀장은 “약함을 연대한다고 하는데 고생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고생을 들여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다”며 “전문가에 맡겨진 고생을 되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창현 정신과 전문의는 “진료실에 갇힌 정신의학도 갇힌 것은 가부장적 치료모델에 익숙해져 있어 의사의 뜻에 모든 걸 맡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중심주의에서 주변의 ‘헛것’으로만 인식돼 온 정신장애인의 말을 통해 치유를 모색하는 연구는 소수이지만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중요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 7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투르에서 한국, 일본, 몽골 관계자들 참여한 제1회 동북아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당사자운동 확산을 위한 국제컨퍼런스가 진행됐다. 한국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본 홋카이도의료대학교 첨단의료연구센터, 몽골 국제울란바투르대학교가 주최한 최초의 동아시아 정신장애 담론의 장이었다.

◆...베델의집 '손님'에서 '친구'로, 그리고 '식구'로 변해간 17년 한일 약자들의 유대

그때 콘퍼런스 토론자로 나온 일본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이토 노리유키 씨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가 없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동료가 있다. 언어의 장벽도 있지만 경험전문가로서의 가치는 같다. 질병과 장애 경험을 나누고 당사자연구의 세계대회와 환청·망상대회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꿈꾼다.”

치유는 연대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연구 역시 연대에 철학적 기초를 두고 있다. 민주주의가 열린 대화에 의해 작동되듯이 독백이 아닌 동료들과의 확장된 자기 표현은 잃어버렸던 말과 고생을 회복하고 정신장애인을 주체의 자리로 옮겨놓는다. 따라서 약자의 연대, 약한 것에 대한 옹호는 동아시아 정신장애 담론을 풍요롭게 하고 기존의 회복 정의와 다른 방식의 리커버리의 가치를 확보하게 된다. 당사자연구를 중심에 둔 한일 정신장애 담론이 소중한 이유다.

처음 베델의집 철학을 접하고 17년 동안 52차례의 한일 교류가 있었다. 김 관장에게도, 한국사회 정신장애 치유 담론은 급속히 강화되고 확장됐다. 그만큼 그도 늙어갔다. 베델의집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는 그의 삶에도 역시 적용됐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 억지로 치유라는 명목으로 학대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마인드포스트>에 이렇게 말했다.

“17년 전 베델의집에서 만났던 당사자 키요시 씨는 처음에 나를 ‘손님’으로 불렀다. 하지만 교류 과정에서 ‘친구’로, 이제는 베델의집 ‘가족’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의 변화처럼 한일 관계 역시 인류애의 연대로 발전돼 나가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으로 오랜 기간 대립적 관계를 맺어왔다. 일본군의 강제에 의한 위안부 문제, 강제노동을 강제했던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과 사과, 특히 일본 정부가 과거 자신들이 벌였던 식민지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배상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당사자연구는 어떻게 정치적 화해에 접속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저작권자 © e마인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언 기자

[약함의 연대로 한일 관계를 재설계하다] “당사자연구는 정신의료의 민주화운동...배앗겼던 인간 존엄과 권리 찾기”

👤 박종언 기자 | ⌚ 승인 2022.08.28 20:49

기획③ 김대환 청주정신건강센터 관장 인터뷰

초창기 당사자연구 매뉴얼 없어...듣기보다 가르치려는 태도가 문제

당사자연구·오픈다이얼로그, 이야기 듣고 대화하는 공통 속성 가져

연령별·증상별 세분화된 당사자연구 가능...일본도 연구가 분화 중

한국서도 베델의집 모형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한국적 접목해야

올해 안에 그간 경험들 정리해 당사자연구 안내서 출판할 것

한일 정신장애인 약자들의 연대 표출되면 한일 정치도 화해할 것

한일 관계는 늘 복잡하다.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역사적 문제, 인류의 공동 과제들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형제적 가치,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 등이 그렇다. 그런데 이 모두를 정치적으로만 풀어낼 수는 없다. 다만 시민사회의 요청들이 정치가 풀지 못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인드포스트>는 일본 베델의집 당사자연구 이념의 출발과 한국 정신장애 시민조직과의 교류·협력의 과정을 주제로 4차례에 걸쳐 기획 기사를 게재한다.



김대환 청주정신건강센터 관장. (c)마인드포스트.

-2006년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를 읽기 전에는 베델의집 자체를 몰랐겠다.

“전혀 몰랐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 있는 노인, 장애인시설을 견학했지만 정신장애인 시설은 베델의집이 처음이었다.”

-처음 당사자연구 관련 책을 읽고 이후 일본에 가서 이를 체험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던가.

“나는 그때 정신보건 수련을 받은 후 4년째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우왕좌왕하면서 나아갈 길이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있었다. 우리와는 다른 생활방식으로 살고 있다니 놀랍기도 하고, 정말 그럴까,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기도 했다.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정말 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태도와 자세로 정신장애 당사자들을 대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신기하기도 했고, 책에서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나 자신과 우리나라 정신보건 현장을 되돌아보게 됐다.”

-2014년 청주정신건강센터가 당사자연구를 처음 시작했는데 실패했다고 했다. 문제가 무엇이었나.

“2014년 이전부터 나름대로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당사자연구는 매뉴얼이 없어서 너무나 막연했다.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이 당사자들의 말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가르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초창기 한국의 당사자연구는 당사자가 병과 고생을 안심하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했다. 연구에 참여한 동료들에 대한 불신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을까. 당사자 자신의 증상과 병을 온몸으로 온전히 이해하거나 받아주기보다는 ‘너, 이상하다’, ‘그것은 증상이고 병이다’라는 눈초리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안심하고 말할 수 있었을까.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현재 한국에서 당사자연구를 하는 기관·단체들은 어느 정도 되나.

“서울, 부산, 광주, 경기도, 충청도 등 11개 시설에서 100명 정도 당사자들이 ‘한국 당사자연구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서로 당사자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습하면서 환청·망상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청주정신건강센터는 당사자연구에서 당사자를 ‘선생님’ 아니면 ‘경험전문가 선생님’으로 호칭하나. 일상적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건가.

“당사자들이 외부에 당사자연구나 동료상담 등의 강의를 나갈 때 자기 소개로 경험전문가라고 소개를 한다. 센터에서 경험전문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몇몇 분들은 ‘형’이나 ‘씨’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다.”

-당사자연구와 오픈다이얼로그(Open Dialogue)의 대안적 치료체계의 공통적 속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당사자의 말,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가장 공통적인 속성인 것 같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 사고방식과 맞지 않으면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일방적인 말하기와 일방적인 듣기의 독백을 대화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인간이 환경으로 인해 말이 와해되고 분절적이고 반구조적이고 일관성이 없이 헛소리가 될 때, 그것도 당사자연구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저에게 그런 분의 당사자연구를 지원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래도 무슨 말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 말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무카이야치 선생은 항상 병원과 시설 등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당사자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 분절되고 일관성 없는 헛소리의 조각 조각을 맞추는 능력은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연구가 발전되면 한데 묶지 않고 연령이나 증상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세분화돼도 괜찮겠다고 생각한다. 하나로 연대해서 좋은 점이 있고, 세분화해서 좋은 점이 있고 각각의 장점이 있을 것이니까. 일본도 정신장애 당사자 연구, 발달장애 당사자연구, 노숙인 당사자연구, 중독 당사자연구, 운동선수 당사자연구, 기업 당사자연구 등으로 분화하고 있다. 그래도 당사자연구라는 하나의 의미로 묶여 있다.”

-한국에서도 베델의집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베델의집 이념과 공동체 정신을 배워서 한국식으로 접목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청주정신건강센터가 한국의 베델의집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물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환청을 경험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창업(創業)을 하겠다고 하면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보통 사람들은 망상으로 치부해버리지 않을까.

“정신장애인들이 창업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적인 측면으로 돈을 얼마를 벌고, 생산성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그렇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을 노동과 일과 활동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한다. 아렌트는 노동의 영역을 사적 공간, 혹은 경제의 영역이라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개성을 지닌 존재가 아닌 카테고리화된 인간, 노동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활동의 영역을 공적 공간인 정치의 영역이라 부르고 언어를 활용해 한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세계의 실재성이 표현되는 표현의 공간이라고 했다. 아렌트가 말하는 활동의 영역에서의 창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대환 청주정신건강센터 관장. (c)마인드포스트.

-정신장애인이 당사자연구를 통해 감정을 해소한다는 건 그가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

“당사자연구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고 공감을 받는 것만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회복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의미가 있을 거다. 베델의집에서 이야기하는 당사자연구를 통한 회복은 동료들과 연결되었느냐, 아니냐로 이해하는 것 같다.

당사자연구 과정에서 몇 명의 동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당사자연구 결과 몇 명의 동료들과 어떤 유대, 연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로 회복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 같다. 환청과 망상은 사라졌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고립되어 혼자서만 지내는 당사자를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정신의료체계가 당사자의 삶의 목표를 획일적으로 사회복귀와 자립으로 재단하는 건 폭력이라고 했다. 왜 그런가.

“기후 위기가 사회적·정치적 화두가 됐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의 주인 노릇을 하며 인간 중심적인 개발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그 영향으로 기후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많은 산림이 목재를 위한 벌목과 식량 생산을 위한 개간 등으로 숲의 식물과 동물들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그중에서 쓸모를 찾지 못한 많은 풀을 우리는 잡초라고 부르는데, 그 잡초들 덕분에 벌레와 동물, 숲이 건강해진다. 건강한 숲처럼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약함과 예민함으로 아직 자신의 쓸모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정상성, 건강함 등의 표현으로 강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신화를 우리 모두에게 강요하고 있다.

약함의 유대보다는 강자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 사회복귀와 자립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 ‘새로운 사회복지실천 당사자연구’를 출간했다. 향후 다른 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사자연구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당사자연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당사자연구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해서 당사자연구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다. 환청과 망상을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꼭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

-당사자연구의 진원지인 일본에서는 정신과 병상이 33만 병상이다. 당사자연구와 병상 수 감소는 서로 윈윈(win-win)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당사자연구로 많은 당사자들이 퇴원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당사자연구 활동과 시연회를 다니도록 하겠다. 당사자연구 시연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당사자들의 고생과 고통을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이웃 주민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병상 수 감소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한일 정부의 정치적 관계가 여전히 대립적이다. 여기서 한일 베델의집 당사자연구는 어떤 의미가 될까.

“제가 첫 방문 때 우라카와 시장을 면담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때 독도 문제로 정치적인 갈등이 있던 때였다. 우라카와 시장이 베델의집 방문을 환영하면서 정치적인 것은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민간인들은 민간교류를 통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지도록 더 많이 교류하자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17년 동안 정치적인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기관과 기관의 교류로 이어졌다. 올해 몽골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동북아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오히려 공동의 목표, 협력 사업들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당사자연구는 약함의 유대이다. 그렇지만 정치는 강함의 대치가 아닐까. 당사자연구의 입장에서 한일 정치의 화해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약함의 유대를 통해 강해지고 화해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약함(-) + 약함(-) = 강함(+)이기 때문에 한국의 약한 당사자와 일본의 약한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연대하다 보면 그것이 강함으로 표출되고 그 영향을 받은 정치도 화해하리라 생각한다.”

-당사자연구가 한일 사회의 민주적 시민단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당사자연구는 정신의료의 민주화 운동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빼앗겼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다. 더 많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고생과 고통, 증상과 병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장했으면 한다. 이는 성공을 쫓는 방향성 대신 ‘약함의 정보 공개’와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의 내려가는 삶도 살만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참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e마인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언 기자

[약함의 연대로 한일 관계를 재설계하다] “인간은 연구하는 존재...당사자연구는 평화를 창출하는 운동”

8 박종언 기자 | ㉹ 승인 2022.08.29 20:27

기획④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홋카이도의료복지대학 교수 인터뷰
후설은 함께 철학하기를 강조...당사자연구와도 공통되는 이념
당사자연구는 고통에 대한 병리적 해석 아닌 소중한 경험으로의 관점 추구
전문가에게 맡겨지는 치료모델은 본인 부재(不在)의 정신의료 성립시켜
정신질환은 그가 살아온 이야기 자체...이야기를 통해 회복 시작돼
당사자연구·오픈다이얼로그는 '대화'에 기초한 대안적 치유 모델
최소 약물주의가 문제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결여가 과제
범죄 저지르고 교도소 재입소하려는 누범 장애인 문제...대화의 고립 때문
차이에서 오는 풍요의 발견 속에서만 21세기의 대화 열릴 것

한일 관계는 늘 복잡하다.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역사적 문제, 인류의 공동 과제들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형제적 가치,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 등이 그렇다. 그런데 이 모두를 정치적으로만 풀어낼 수는 없다. 다만 시민사회의 요청들이 정치가 풀지 못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인드포스트>는 일본 베델의집 당사자연구 이념의 출발과 한국 정신장애 시민조직과의 교류·협력의 과정을 주제로 4차례에 걸쳐 기획 기사를 게재한다. 마지막 편으로 인터뷰는 무카이야치 이쿠요시(向谷地生良·67) 홋카이도의료복지대학 임상복지학부 교수와 서면으로 진행됐다.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교수. 사진=무카이야치 이쿠요시 제공

-베델의집 이념 중 하나가 '안심하고 땡땡이칠 수 있는, 이익이 나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이다.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자본주의 이념에 대한 저항이라고 봐야 할까.

“우리는 빠른 일, 큰 일, 강한 일, 학력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것에 가치를 두고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한 발전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이뤄졌고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의 몸과 마음을 희생시켜 왔다. 거기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 온 것은, 진짜 변혁은 '약한 곳, 작은 곳, 먼 곳'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일본 내에서도 가난한 도시인 홋카이도의 더욱 과소화가 진행되는 우라카와에서 '안심하고 땡땡이칠 수 있다, 이익이 나지 않는 것을 소중히 한다'는 이념은 고도 성장주의에 대한 중요한 안티테제라고 생각한다.”

-베델의집 이념은 인간의 강점에 초점을 두면 단점을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강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높은 학력이나 경제적인 풍요가 그 사람의 약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경험이 강점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약점도 그 사람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 해 3000여 명이 베델의집을 국내외에서 방문한다. 이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나.

“베델의집 견학자는 연구자, 지원자, 당사자나 가족 등 다양한 분들이 온다.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당사자연구다. 즉석에서 당사자 연구 미팅에 참여해 주는 것, 그리고 당사자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교수님은 후설의 현상학을 자주 언급했다. 그의 어떤 철학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현상학이란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학문의 전제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철학하는 때야말로, 사상 그 자체를 볼 가능성을 가진다고 후설은 말한다. 이 발상은 당사자연구가 소중히 여기는 세계와 공통된다.”

여기서 나온 당사자연구의 이념이 '나 자신으로, 함께'이다. 종래의 정신 의료나 거기에 관련된 관계자의 지원은, 정신과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전문가기관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치료 방침이나 원조 방침을 결정해 왔다.

당사자연구는 스스로에 고통에 관심을 갖고 문제나 병리가 아닌 소중한 경험이라는 관점을 추구한다. 자신이 겪는 현상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가 보여지는 것이다.”

-당사자연구는 말을 통해 잃어버렸던 고생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 고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정신과 치료 모델 중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이 있다. 정신과 치료의 표준 모델인데, 발병하기 쉬운 소질과 그 사람의 한계치를 넘는 스트레스가 결합될 경우 인간은 정신질환이 발병한다는 논리다. 이 관점에서 일본의 정신과 치료는 본인을 스트레스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병명을 알리지 않고, 환각·망상을 건드리지 않는다.”

또 말한다는 것이 컨디션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복용하는 약을 포함해 정보로부터 차단하고, 전문가에게 말김으로써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치료를 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본인 부재(不在)의 정신 의료가 성립돼 있다. 2000년대 일본에서 시작된 장애인운동의 당사자 주권이 주장하는 ‘우리에게도, 리스크(risk)를’이라는 슬로건과도 공통된다. 다만 우리는 당연한 고생을 되찾는다, 자신의 말을 되찾는다는 슬로건으로 타인의 관리·지배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해 왔다.”

-교수님은 정신장애를 말과 관계의 병이라고 했다. 말이 왜 그토록 필요한가.

“문화인류학자 아서 클라인먼(Arthur Kleinman)이 쓴 ‘병의 이야기’가 있다. 병의 증상은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트러블로 보이지만, 실은 그 사람의 살아온 역사,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인간관계, 생각, 사회와의 연결, 생활 습관 등으로부터 이야기로 탄생한다는 고찰이다. 즉 병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발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질환은 아픈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 자체다. 그것이 이야기로 회자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관계 속에서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연구와 핀란드 오픈다이얼로그는 말을 관계의 중심에 두는 대안적 회복 프로그램이다. 이 두 대안 치료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당사자연구와 오픈다이얼로그는 대화를 관계의 중심에 두는 대안적 회복 프로그램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시작된 대화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냈다. 정신의료에서는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모색이 1950년대부터 본격화되면서 약물요법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요법도 개발돼 왔다.

1980년대에 대화를 기반으로 한 오픈다이얼로그가 구성되고 이후 당사자연구가 생겨났는데 공통점은 ‘대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당사자와 전문가가 서로의 전문성을 갖고 대등하게 마주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당사자연구는 대화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당사자가 사는 세계에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당사자의 선행연구, 선행실천을 살린다는 발상의 독특함이 있는 것이다. 특히 연구라고 하는 발상은, 대학의 연구자와도 대등하게 협력, 제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베델의집과 같은 정신장애 공동체가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

“베델의집은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 가능한 다양한 삶, 실패를 포함해 사는 것에 관한 경험을 발신해 왔다. 그것이 당사자연구라는 형태로 확대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정신장애 공동체라는 형태를 수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병원이나 지역 생활 지원에 도입하려는 그룹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적인 교류도 계속되고 있다.”

-혹시 한국의 조현병(통합실조증) 당사자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교수님은 동의하실까. 이들이 망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매우 흥미가 있다. 한국의 조현병 당사자가 경험을 살린 창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본은 33만 정신과 병상이 있고 한국은 8만 정신과 병상이 있다. 교수님은 정신병원이 모두 폐쇄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미국의 경우 정신과 병동을 감축했더니 노숙자가 늘고 많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일본에서도 수형자의 20%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형을 살고 있다. 급성기에 대응한 정신과 병원이나 종합병원 안

에 정신과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노동에의 지원, 생활 지원, 배움 지원, 육아 지원 등으로 정신과 병상 수는 더 줄일 수 있다.”



무카이야치 이쿠요시 교수. 사진=베델의집 누리집 갈무리

-베델의집 당사자연구는 최소 약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소 약물주의를 따르다 재발해 입원하는 비율이 높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요법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최소한으로 하고, 가능하다면 그 이외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대화적 접근이나 환경 조정, 피어 서포트(동료지원) 활용 등의 비약물요법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요법만으로는 대응은 약물 다량으로 빠지거나 재발률을 높이게 된다. 최소 약물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비스의 결여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혹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

“탈시설화는 정책의 방향성으로서是对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벽'과 싸워야 한다. 법. 제도라는 사회의 구조, 국민의 의식 개혁, 환경의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정신과 병원에 재입원을 희망하는 사람, 퇴원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 교도소를 출소하더라도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교도소로 돌아가려는 '누범(전과자) 장애인' 문제 등이 있다.

거기에 공통되는 것이 고립의 문제다. 가혹한 입원이나 교도소보다 지역생활의 고립이나 고독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당사자연구를 통해 함께 세미나와 국제컨퍼런스를 진행해 오는 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

“안심할 수 있는 삶이란 국가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공통의 바람이다. 특히 정신보건복지 과제가 공통된 양국은 '경험전문가', '경험연구자'가 교류를 해 서로 배움으로써 과제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대립이 여전하다. 약함의 연대를 주창하는 정신장애 회복 운동이 정치적 대립을 완화할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일본의 극작가이며, 한국 유학의 경험이 있는 히라타 오리자(平田オリザ)의 말을 소중히 하고 싶다. 그는 모든 대처의 원점에는 화해가 있다고 말한다. 바로 정신건강 위기의 기점에는 항상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분쟁이 극대화된 것이 전쟁이라면 당사자연구라는 대화 실천은 가까운 곳에 평화를 창출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갈 길이 멀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

히라타 오리자의 저서 '대화의 레슨'에 따르면 21세기의 커뮤니케이션은, 전하지 않는다는 데서 시작된다. 대화의 출발점은, 여기밖에 없다. 나와 당신은 다르다는 것. 나와 당신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 나는 당신을 모른다는 것. 내가 아끼는 것을 당신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래도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늘려가며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결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며 차이 속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도 분명 있다는 것.

흐트러짐, 흔들림, 깨짐으로 말이 변해가지만 변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부정해도 안 된다는 것. 아름다운 말, 옳은 말이 미리 어딘가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들은 언어의 변화 속에서 조금씩 우리 자신의 안쪽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라는 것. 먼저 얘기하자.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찾아보자. 차이에서 오는 풍요의 발견 속에서만 21세기의 대화가 열려 간다.”

-당사자연구가 영국, 미국, 아시아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교수님은 이 당사자연구가 향후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기를 원하나.

“저는 당사자 연구는 일본에서 태어난 로컬 문화라고 생각한다. 각각의 나라에서, 각각의 문화, 현상에 입각한 연구가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수님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연구하는 존재다.”

저작권자 © e마인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언 기자